

14장 문둥병의 정결과 회복

1. 문둥병자의 정결과 회복 (14:1-32)

1) 첫 주에 행하는 의식 (14:1-9)

정결케 하는 규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알려 주셨다. 정결케 되는 의식은 두 차례 시행되는데, 첫째는 진 밖에서, 둘째는 진 안에서 이루어진다. 문둥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추방되었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을 가르친다.

문둥병자의 병이 나았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알리고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서 살펴본다. 그 사람이 나았을 경우에는 정결한 새 두 마리,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를 준비한다. 정결한 새를 두 마리 준비하였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는다. 그리고 그 피를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로 짚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 일곱 번을 뿌려서 정결하다고 선언한다.

정결하다는 선언 후에 다른 새는 들판으로 날려 보낸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는 문둥병으로 인하여 여러 제약을 받았으나 이제는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정결하다는 선언과 함께 들판으로 풀려난 새는 16장에 나오는 아사셀의 수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갖는다(16:14, 22).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가듯이 그 새가 문둥병의 부정함을 짊어지고 멀리 날아간다.

두 마리의 새로 정결하다는 의식을 치른 후에 그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는다. 이제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나 7일이 지난 후에 들어온다.

2) 둘째 주에 행하는 의식 (14:10-20)

8일째 되는 날에 회막에서 속건제, 속죄제, 소제, 번제의 제사를 드린다.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흠 없는 어린 수양 두 마리, 일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고운 가루 예바 십분의 삼(약 6.6리터)에 기름 섞은 소제 물과 기름 한 록(0.3리터)을 준비한다(14:10).

첫째, 어린 수양 한 마리와 기름 한 록으로 속건제를 드린다. 속건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제사장은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오른편 귓부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제사장은 기름을 왼편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손가락으로 찍어서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고, 남은 기름은 희생의 피를 바른 오른편 귓부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그의 머리에 발라서 속죄한다(8:23-24, 33). 8일 전에 새의 피를 일곱 번 문둥병자에게 뿌리면서 시작한 예식이 이러한 방식으로 마무리되어 간다(14:11-18).

둘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14:19-20).

위의 서술에서 현저한 것은 속죄제나 번제나 소제와 달리 ‘속건제’가 강조된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변상하는 의미가 있는 제사인데, 어떠한 손해에 대한 보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속건제를 드리면서 피와 기름을 바르는 의식도 상세히 언급한다.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은 피로 정결케 될 뿐 아니라 기름으로도 성별되었다. 제사장이 기름부음을 받은 것처럼 그도 기름부음을 받았다. 또한 제사장의 위임 식처럼 네 가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문둥병자를 제사장과 비교하면서 묘사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상하고 별충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둥병자의 신분에서 제사장 신분으로 격상시켜서 주님을 섬기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3)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결 의식 (14:21-32)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속건제를 위한 어린 수양, 소제로 드릴 고운 가루 한 예바,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로 드릴 비둘기 두 마리였다. 정상적으로 정결 의식을 행할 때와 비교하면 속건제 제물은 수양을 동일하게 요구하

였으나 다른 세 제사에는 고운 가루나 비둘기와 같은 것으로 대체하였다.

정결 의식은 앞에 나온 것과 동일하였다(14:12-18 // 14:23-31). 여기에서도 속건제가 강조되고,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귓부리,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는 것도 동일하다. 속건제를 드린 후에는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2. 집에 발생한 문둥병에 대한 조치(14:33-53)

1) 첫째 치료 (14:33-42)

집에 문둥병이 발생한 것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한다.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발생하면 (1) 집을 비우게 하고 (2) 색점이 푸르거나 오목한지를 살피고 (3) 혐의가 있으면 7일 동안 폐쇄하고 (4) 7일 후에 다시 살펴서 색점이 있으면 그 돌을 빼서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고 (5) 집안 사면을 긁고 그 흙도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린다. (6)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고 다른 흙으로 바른다.

2) 둘째 치료 (14:43-47)

돌을 빼고 흙도 고쳐 발랐으나 색점이 다시 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악성 문둥병이기 때문에 집을 헐고 돌과 재목과 흙은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린다.

3) 고침 받은 후의 의식 (14:48-53)

가옥에 발생한 문둥병이 나았을 경우에 행하는 의식은 사람이 나았을 때에 진 밖에서 행하는 일 단계와 비슷하다.

3. 요약 (14:54-57)

문둥병을 사람, 의복, 가옥으로 나누어서 진단하는 법을 알려 준다고 요약하여 말하였다.

묵상과 실천:

문둥병자가 나올 때에 행하는 정결 예식의 의미

1. 죄에서 정결케 됨

문둥병은 부정함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사용하셔서 마음의 죄악의 더러움을 가르치셨다. 후에 다윗이 죄를 범한 자신이 정결케 될 때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라고 간구한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시 51:7) 이스라엘 백성은 심한 피부병이 그들의 마음의 더러움과 부정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예수님께서도 장로들이 제정한 결례에 대해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임을 가르치셨다(마 15:11, 17-20). 레위기에서는 문둥병자가 낫는 방법에 대하여서는 가르치지 않고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문둥병자를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치료해 주심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

2. 속건제의 의미 - 정결케 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임

문둥병자가 나올 때에 행하는 정결 예식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비슷하다(출 29:20; 레 8:23-24). 기간이 8일이 소요된다는 점뿐 아니라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서원 때에 행하는 예식과도 비슷하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실을 강조한다.

이 점은 문둥병을 죄와 관계하여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일면적임을 알려준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면 죄에서 정결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을

강조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문둥병자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결함 그 자체가 강조되지 않았다.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데에서 네 가지 제사를 행하는데, ‘속건제’에 관하여서는 길게 다루지만 (14:12-18) 다른 세 제사는 언급만 하고 지나간다(14:19-20). 그의 속죄를 강조하려면 속죄제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속죄제는 그냥 언급만 된다. 속건제는 ‘보상과 벌충’의 의미가 있는데, 문둥병자의 회복에서 어떠한 보상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웬햄(Wenham)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문맥과 잘 맞다.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과 오른발의 엄지가락에 바르는 점은 말씀을 바르게 듣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상징하는 일인데, 제사장도 임직될 때에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과 발의 엄지가락에 피를 발랐다(레 8:23-24).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봉사하는 일을 지금까지 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부족을 벌충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것이 문둥병자의 속건제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제사장 위임식 때처럼 네 가지 제사를 드렸다. 문둥병자를 회복하는 예식은 그가 부정에서 정결케 되거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주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살겠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제는 그 위치에서 주님을 힘써 섬기면서 나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의미를 지닌다.

14장 익힘 문제

1. 제사장은 문둥병자의 병이 나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어디로 가서 그를 만났습니까? (2, 3절)
2.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 1) 제사장은 그를 어디에서 진찰합니까? (3절)
 - 2) 진 밖에서 제사장은 환자가 나은 환자에게 잡은 새의 피를 뿌리는데 몇 번을 뿌려야 합니까? (7절)
 - 3) 정결함을 받은 자는 집에 들어온 후에 자기 장막 밖에서 며칠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까? (8절)
 - 4)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제8일에 성막에 나아가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10-32절)
2. 1) 문둥병 환자의 정결규례 중에 어린 수양 하나를 기름 한 독으로 드린 제사는 무엇입니까? (12절)
- 2) 그것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드렸습니까? (12절)
3. 집에 문둥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 1) 집에 색점이 발한 경우 색점이 발한 벽돌과 굵은 벽면의 흙은 어디에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40-41절)
 - 2) 고친 집에 다시 색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45절)
 - 3) 고친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한 예식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49절)